

최송설당 문학에 나타난 자아표출 양상과 의미*

최혜진(목원대)

〈 목 차 〉

- | | |
|--------------------------------|-------------------------|
| 1. 머리말 | 3. 내적 자아의 표출-고독과 욕망의 환유 |
| 2. 공적 자아의 표출-사회적 의지에 대한 정서적 기록 | 4. 공적 자아와 내적 자아의 충돌과 지향 |
| | 5. 맺는 말 |

1. 머리말

최송설당(崔松雪堂, 1855-1939)은 개화기 역사의 격변 속에서 남다른 삶을 산 여성이다. 그녀는 몰락한 가문의 3녀 중 장녀로 태어나 여러 고난을 거치며 집안을 책임지다가, 서울로 상경하여 영친왕의 보모로 궁궐에 거주하였으며, 이를 인연으로 가문을 다시 일으켰다. 이후 자신의 막대한 재산을 통해 육영 사업을 펼침으로써 가문은 물론 지역에서 존경과 사랑을 받았다. 무엇보다 그녀는 한시, 문과 한글가사를 남겨 생전에 이미 『송설당집』 3권 3책(1922. 12.1)을 발행한 바 있는 문학가였다. 개화기의 삶을 산 여성으로서, 역사적으로나 문학적으로 큰 족적을 남긴 그의 행적은 일찍부터 많은 조명을 받아왔다. 그녀는 후손들에게 ‘애국계몽운동가’¹⁾로서의 명예를 부여받았다. 특별히 그녀의 업적 중 사회적으로 반향을 일으킨 김천고등보통학교의 설립은 최근

* 이 논문은 2009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인문사회연구역량강화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KRF-2009-32A-A00089)

1) 「송설당기념사업회 창립 선언문」, 『송설당집』 II, 명상출판사, 2005, 421-422쪽.

까지도 선양되고, 최송설당기념사업회를 통해 많은 활동이 이어지고 있다.

그간 최송설당에 대한 연구는 생애연구와 문학연구 분야에서 이루어져 왔다. 생애연구²⁾에는 송설당의 삶과 활동, 육영사업의 과정과 결과 등이 그 주요 논의 대상이었다. 문학연구³⁾에서는 한시에 대한 연구와 가사에 대한 연구가 있었고 생애와 문학을 총체적으로 고찰한 학위논문⁴⁾도 제출되었다. 생애연구에서는 궁궐에서 나온 이후의 삶에 주로 집중되어 있는 편이며, 이전의 삶에 대해서는 그녀의 구술 외에 구체적인 여러 사안이 아직도 모호한 편⁵⁾이다. 문학연구에서는 그녀의 문학적 특징이 논의되었으나, 심도 있는 논의로 나아가지 못하고 담보상태인 것으로 보인다.⁶⁾ 송설당의 문학은 한시나 문은 물론 한글가사에 이르기까지 그 편폭이 넓은 뿐만 아니라, 작품의 양도 많기 때문에 여성문학사적인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게 여겨져야 함에도 논의는 활발하지 못한 것이다. 전통과 근대의 사이에서 내용과 형식의 조화를 통해 문학적 성취를 이루었던 그녀의 작품은 시대적인 의미 또한 지니고 있다. 따라서 문학과 사회, 여성, 자아의식, 표현적 측면에서 다양하게 연구되어야 할 필요가 절실하다.

송설당은 한시 259수와 가사 49수를 남겼을 뿐만 아니라, 그녀를 위한 시,

-
- 2) 김희곤, 「최송설당 연구」, 『한국근대사연구』 32, 한국근현대사학회, 2005.
김호일, 「최송설당의 교육이념과 교육활동」, 『국학연구』 11, 국학연구소, 2006.
- 3) 허철희, 「최송설당 시가 연구」, 『한국한문학연구』 15, 동국대한국문학연구소, 1992.
백순철, 「규방가사와 근대성의 문제」, 『한국고전연구』 9, 한국고전연구학회, 2003.
한석수, 「최송설당의 문학세계와 현실 인식 - 언문사조를 중심으로」, 『한중인문학연구』 13, 한중인문학회, 2004.
백순철, 「최송설당 가사의 문체와 현실 인식」, 『고시기연구』 15, 한국고시기문학회, 2005.
손앵화, 「최송설당 가사에 나타난 꽃의 의미화 방식」, 『고전과해석』 8, 고전문학한문학연구학회, 2010, 39-69쪽.
- 4) 김종순, 「최송설당 문학연구」, 한성대학교학원 박사학위논문, 2006. 이 논문은 『최송설당 문학 연구』(경인문화사, 2008)로 다시 간행되었다.
- 5) 송설당의 치부과정, 결혼 여부, 궁궐 생활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 6) 2006년 박사학위논문이 제출된 이후 송설당 관련 논문은 2010년 1편, 2013년 1편이 전부다.

문, 표, 기, 전 등등 167편의 글을 내외 인사로부터 받아 『송설당집』 전3권을 발간하였다. 그녀에 대한 신문기사나 회고담, 인터뷰 등의 자료는 수백 편에 달한다. 이렇게 문학은 물론 관련 자료가 풍부한 작가는 우리 문학사에서 드물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그녀의 가사는 문학적 성취가 뛰어날 뿐만 아니라⁷⁾ 여러 가지 실험적 형식을 도입하면서 쓰여진 여성가사라는 점에서 문학사적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최송설당 문학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일환으로 그녀의 자아 의식이 표출되는 양상에 주목해서 한글 가사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그녀의 자아의식은 공적 자아와 내적 자아로 크게 나눌 수 있다.⁸⁾ ‘공적 자아’는 대외적으로 드러나거나 만들고 싶은 이미지를 나타낸 시적 화자의 모습을 일컫는다. 반면 ‘내적 자아’는 밖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내면의 고독과 회한 등 슬프거나 어두운 내면의 이미지를 나타낸 시적 화자의 모습을 일컫는다. 그녀의 삶을 관통했던 주요 의식은 바르고 깨끗하게 살고자 한 공적 자아였지만 그녀 내면 속의 여러 정서들이 표현된 내적 자아도 문학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또한 공적 자아와 내적 자아가 함께 드러나는 작품도 있어서 그녀 자아의 충돌과 화해가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그녀의 삶과 의식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명할 수 있을 것이며, 그녀의 문학적 정신과 성취가 이루어낸 방식을 규명해 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주 텍스트는 한글 가사 49편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한시와 문 등의 자료를 보완하기로 한다.⁹⁾

7) ‘송설당의 가사는 문장이 단아하고 구김살이 없으며 유창하다. 그리고 용사(用事)가 세련되며 전고(典故)가 해박하다’고 평가받는다.

한석수, 「최송설당의 문학적세계와 현실 인식 - 언문사조를 중심으로」, 『한중인문학 연구』 13, 한중인문학회, 2004, 288쪽.

8) 여기서 자아의 분류를 공적 자아와 내적 자아로 본 것은 자아의 지향을 기준으로 삼은 개념틀이다. 일반적으로 공적/사적, 혹은 외적/내적으로 분류의 틀을 삼아야 하나, 자아의 외면적, 공식적 의지와 지향으로 보면 공적 자아의 개념이 타당하고, 내면적, 본능적 의지와 지향으로 보면 내적 자아의 개념이 타당하기에, 양자가 대등하고 보편적인 개념으로 양립하지 못함을 알면서 불가피한 선택을 하였다. 향후 더 적절한 개념이 있다면 보완을 해 나가기로 하겠다.

2. 공적 자아의 표출 - 사회적 의지에 대한 정서적 기록

송설당 가사는 공적 자아의 표출 양상이 두드러진다. 그녀의 삶이 여성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가문의 복원을 위한 역할과 책임을 맡은 대사회적 삶에 경도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 삶의 키워드는 송설, 가문, 충효 등이었다. ‘되고싶은 나’로서의 공적 자아는 가사에서조차 지속적으로 표출되면서 긍지와 자부심을 높이고 있다.

1) 공적 자아로서의 자기 정체성

송설당은 어린 시절의 회고를 통해 자신이 가문의 신원과 복원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다짐한 바 있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평생을 살았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엄격하였고, 지조와 깨끗함을 자신의 이미지로 만들었다. 가사의 처음과 두 번째 작품인 <창송(蒼松)>과 <백설(白雪)>은 그녀가 바라고자 하는 공적 자아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인왕북악(仁旺北岳) 바라보고 국궁(鞠躬)하고 섰는 모양(貌)樣
 가지가지 충절(忠節)이오 님시 님시 충심(忠心)이라
 류슈광음(流水光陰) 변천(變遷)흔들 네 빛 네 뜻 곳칠손야
 풍상질고(風霜疾苦) 늘근 몸이 본식(本心)본심(本心) 불변(不變)하니
 천종만종(千種萬種) 초목중(草木中)에 너 갖든 류(類) 또 잇는나
 백운명월(白雲明月) 도커니와 백설중(白雪中)에 빛이 논다
 창송백설(蒼松白雪) 두 글(字)을 상합(相合)하니 송설(松雪)이라

-〈창송(蒼松)〉

창송(蒼松)하(下)에 비겨 안져 설경산천(雪景山川) 바라보니
 천슈만슈(千樹萬樹) 가지가지 춘식(春色)이 란만(爛漫)하고
 이곳 저곳 곳곳마다 월광(月光)이 조요(照耀)하다
 ……

9) 최송설당기념사업회, 『송설당집』 I, II, 명상출판사, 2005.를 기본 자료로 삼았다.

전일前日 보던 고저청탁高低淸濁 하나 업시 미몰埋沒호니
 변천시代變遷時代 저러호고 문명세계文明世界 이러호 듯
 그중其中에 독립창송獨立蒼松 더욱히 유식有色호야
 양춘陽春을 화답和答호니 만고불변萬古不變 송설松雪인가

-〈백설(白雪)〉

인왕산 북악산은 왕실과 군주를 표현한 것일 터이다. 고고하게 서있는 소나무는 국가와 임금에 대한 충절과 충심의 다른 표현이다. 그 소나무는 백설 중에 더욱 빛날 것이니 그 기상으로 ‘송설’이 되는 것이다. 소나무는 ‘장부웅심’ ‘호걸기상’ ‘렬사정조’ ‘굿센정신’ ‘신자충절’로 표현된다. 그리고 그것은 송설당의 공적 자아상이기도 한 것이다. 소나무와 짝을 이루는 백설의 이미지는 모든 ‘고저청탁’과 ‘변천시대’ ‘문명시대’까지도 덮어버리는 포용력과 깨끗함, 순수로 표상된다. 그리고 시대의 어지러움을 맑게 꺼안아 ‘고요’를 내린 백설 위에 푸른 소나무를 빛나게 한다. 곧 흰 눈으로 표상되는 정결함과 지조와 의지로 표상되는 소나무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만들고자 한 것이다. 이러한 의지는 〈란초(蘭草)〉에서 사군자 외에 설리고송(雪裡孤松)을 더하여 ‘오청(五淸)’으로 삼은 것에서도 드러난다. 그녀가 벗삼고 사랑한 자연물에 의탁하여 자신의 군자다움을 나타내고자 한 것이다.

이렇게 자신의 호를 ‘송설당’이라 지은 이유를 그녀는 〈송설당원운(松雪堂原韻)〉에서 다음과 같이 밝힌 바 있다.

외람히도 송설당이라 칭한 나를 비웃으나	笑我濫稱松雪堂
이 마음은 못 꽃들과는 짝하기 싫어서였네	此心不欲伍群芳
세월 겪으며 푸르고 창창한 바탕 기대하고	可期經歲靑蒼質
다만 사랑한 것은 티 없이 맑고 깨끗이었네	祇愛無塵皎潔光
가업을 실추하여 망극한 심정 가없어도	業墜箕裘情靡極
여자로 태어난 이내 몸 한은 길기만 하였네	身爲巾幗恨須長
인간 세상 많은 풍상 겪은 액운을	人間多少風霜劫
이 다음 내 장차 옥황께 하소하리	他日吾將訴玉皇

자신을 외람되게 ‘송설당’이라 칭한 것은 못꽃들과 함께 있는 것이 싫어서

였다는 것이다. 보통 여성들처럼 살기보다는 가업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맑고 깨끗한 모습을 가지고 싶었다고 한다. 그러나 그러기에 여자로 태어난 것은 그녀에게 항상 한이 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송설당’이라는 자호를 통해 다른 여성과 구별되는 삶을 살고자 했던 것이다. 그것은 일반 여성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했던 그녀의 특별한 사연과 의지를 내면화 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¹⁰⁾

이러한 공적 자아에 대한 의지와 기상을 그는 자신의 문학을 통해 지속적으로 천명하였다. 그 대표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 <술지(述志)>이다.

나도 민족民族 일본조一分子로 일편령地一片靈地 갖췄것만
 인간삼락人間三樂 도타흔들 니 몸이 녀조女子 되고
 삼종지의三從之義 지중至重 하니 니 몸에는 관계關係업다
 ……
 삼천리三千里 화중세계花中世界 효조충신孝子忠臣 적선가積善家에
 장부丈夫몸이 되야나서 스셔삼경四書三經 룩도삼략六韜三略
 츠데섭렵次弟涉獵 능통能通커든 이부주소伊傅周召 스승 삼고
 요순우탕堯舜禹湯 님군 맛나 국가스업國家事業 다흔 후後에
 동서양東西洋의 위인偉人으로 류방백세流芳百世 해야불가

송설당은 자신이 ‘민족의 일분자’로 정신을 갖추고 있음을 말한다. 그러나 여자의 몸이 되어 풍상고락을 겪을 수밖에 없었음을 토로하며, 여자에게 ‘삼종지의’가 중요하나 ‘니몸에는 관계업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자신과는

10) <송설당기>에서 그녀는 “고독하게 떠돌아 한양에 살 때의 나는 겨울 영마루에 외로이 우뚝 선 소나무였다. 깨끗이 선조의 억울함을 씻고 양춘이 회복되었을 때의 나는 우로받아 고목이 된 큰 소나무였다. 도리어 또, 우러러 성묘하고 애처롭게 경모함을 이기지 못할 때의 나는 땅에 쌓이는 눈이었다. 나랏 은혜를 갚지 못하고 걱정스런 마음이 근심에 쌓였을 때의 나는 응달진 언덕에 녹지 않는 눈이었다. 밤낮으로 두려워하며 간절한 뜻으로 국은에 보답할 때의 나는 하늘에서 밤에 내리는 눈이었다. 백발로 거울을 대하니 만사가 상전벽해 같았을 때의 나는 하루 아침에 천 가닥으로 쏟아지는 눈이었다.”라고 쓴 바 있다.

『송설당집』 I, 172쪽.

관계가 없다는 것은 두 가지로 읽힐 가능성이 있는데, 하나는 송설당 자신은 일반 여성의 삶과는 다른 여장부로서의 삶을 살고 있다는 자긍심의 표현이며, 다른 하나는 본인의 처지가 기구하여 보편적인 여성의 삶을 살지 못했다는 회한의 표현이다. 작자는 어느덧 육순을 맞게 된 세월을 돌아보며 후생에는 ‘장부몹이 되어나서’ 학문을 닦은 후에 성군을 만나 ‘국가스업’을 하여 ‘동서양의 위인’으로 ‘유방빅세’를 하겠다고 소원한다. 작가가 바라는 자신의 모습인 것이다. 결국 봉건시대 남성들의 ‘출장입상’에 대한 소망을 품고 있음이 확인된다.

요컨대 그녀의 공적 자아로서의 정체성은 창송(蒼松)과 백설(白雪)을 대표 이미지로 하여 만들어졌으며, 남성적 삶에의 소망은 그녀의 삶을 공적 자아로 무장시키는데 기여하였던 것이다.

2) 가문 복원의 의지와 자부심

송설당의 평생 소원은 부친이 어린 시절 이야기한 가문의 신원(伸冤)과 복원(復元)에 있었다. 그녀는 노력과 의지, 운명으로 영친왕의 보모가 되었고, 결국 꿈을 이룰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 송설당은 궁궐에 입성한 후 절제하고 조심하는 삶을 살았다.¹¹⁾ 여자로 태어났지만 증가집의 맏딸로서 아들 역할을 하기 위해 그녀는 철저히 종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사정은 <즈술(自述)>을 통해 충분히 드러나고 있다.

장성長成토록 길녓으니 너 아모리 녀즈女子라도
부모은혜父母恩惠 이즐소냐 하물며 우리 부모父母
처음으로 나를 낳코 련성이녀連生二女 흥신 후後에
싱남괴망生男冀望 다시 업서 우리 조상祖上 종손宗孫으론
우리 집이 맞집이오 우리 부친父親 소싱所生으론

11) 송설당은 <기몽>이라는 한시를 통해 ‘태어나길 절로 부녀의 몸이 되어 풍상에 절로 분주하고 골몰하였네. 밤낮으로 늘 기퍼지 못하고 육순을 하루같이 살았 다네’라고 회고한 바 있다. 『송설당집』 I, 130쪽.

내가 맛쌀 명식名色이라 엇지 감히 쇼홀疎忽히리

.....

우리 부친父親 탄식歎息 말삼 주주야야晝晝夜夜 귀에 저저

너 아모리 어리기로 일시一時나 이즐손가

침선針線으로 의지依止하야 주야晝夜가 상관相關 업시

고싱苦生으로 지니갈 제 악의악식惡衣惡食 썬릴손가

.....

십세前十歲前에 식인 마음 각분묘各墳墓를 봉축封築하고

비석상석碑石床石 비치排置 하니 우리 조종祖宗 루디령혼累代靈魂

만분일萬分一을 위로慰勞할가 부여조父與祖의 미황未遑한 일

최씨 족보崔氏族譜 슈정修正코즈 종손宗孫집과 협의協議하야

거창巨創한 일 고준告竣하니 측싱강무어흔此生更無餘限일 듯

송설당의 자전적 회고인 〈즈술(自述)〉에는 그녀가 생각하는 삶의 목적과 완성성이 드러나 있다. 그녀에게는 어린 시절 부친의 말씀이 각인되어 있었고, 그녀의 삶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분투의 과정이었다고 해도 틀림이 없는 것이다. 작가는 이 작품에서 자신의 출생과정과 가문의 상황, 부친의 소원, 작가의 고난, 양제 맞이, 신원과 종제들의 벼슬, 가문을 보살핀 내용, 선조묘의 봉심, 족보의 수정에 대해 담담히 풀어나간다. 그녀는 종손의 맏딸로서, 의식주는 넉넉하나 ‘문호보전’과 ‘분묘수축’을 위해 늘 근심하였다. ‘화순최씨 번창하기’를 일생 축원하고 ‘동동축축’ 지내었던 것이다. 그러다가 광무 오년(1901) 드디어 신원이 되고 동생들은 벼슬을 받기에 이른다. 무신년(1908)에는 문호를 성립코자 원근종족을 다 모아다 ‘농업즈는 단담주고 학업즈는 공부식여 일문을 안보하고 편친을 위로’한다. 갑인년(1914) 그녀가 육순되던 해에 결국 선조묘의 봉심은 물론 최씨 족보를 수정하는 일을 이룬다. 육순을 회고하며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중심 내용에는 결국 가문의 신원과 복원 과정이 있는 것이다. 송설당은 여자로서 힘든 여러 여정을 거쳤으나 결국 뜻을 이루었고 그에 대한 강한 자부심을 표출하고 있다. 십 세 전에 새긴 마음으로 평생을 책임감 있게 살아온 그녀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는 것은 공적 자아의 표출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때의 자아는 가문의 책임 있는 여

성의 역할에 대한 긍지와 사명감으로 드러난다. 송설당은 어린 시절부터 이러한 가문에 대한 의지를 내면화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이것을 자신의 공적 자아로 여겼던 것이다.¹²⁾

한편 선조의 묘를 봉심하고 비석을 세우는 일에 대해서는 <루디선묘봉심 급립석기스>라는 제목 하에 6개의 작품을 배열하고 있다. 모두 그녀의 봉심 과정과 가문을 돌보는 자긍심을 보여주는 것들이다. 이외에도 송설당은 곳곳에서 자손과 가문에 대한 그녀의 바람을 표출하고 있다. <영도스상련화>에서는 ‘우리 즈손 네 본바더 나는디로 정직하고 나는디로 굳조되게’ 빌고, <무궁화>에서는 ‘우리 즈손 너와갓치 무궁무진 번성호계’ 빌고 있다. <청포도>에서도 ‘우리 형데 우리 자손 너와 갓치 번성호고 너와 갓치 장원호야 빅천체를 무궁호계’로 표현하여 공식구적 표현을 보인다.¹³⁾ 이러한 가족, 가문에 대한 그녀의 애착은 가문이라는 존재 근거를 통해 지역공동체나 국가공동체의 일원으로 공적 기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¹⁴⁾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3) 충, 효, 애민의 정서

송설당의 공적 자아의 표출은 이름과 가문 외에 유교적 관념으로도 실현된다. 특히 순헌황귀비 엄씨와의 관계를 통해 이룩된 충절의식, 보은의식과 어머니에 대한 효도, 농민들에 대한 애민의 정서 등은 그녀의 또 다른 자의식의 표상이며 공적 자아를 만들어내었다고 보인다.

존귀尊貴호신 황비던하皇妃殿下 용중隆重호신 귀비던하貴妃殿下
승운상텨乘雲上天 호신 후後에 초종성복初終成服 못 감쓰와

12) <송설당서>에서도 이러한 점은 드러난다. “내가 그 때 비록 어렸으나 듣고는 문득 놀라서 마음 속으로 생각하기를, 가문에 화가 있어 선조를 위해 설원하는데 남녀를 어찌 따지리오, 죽는 날까지 반드시 신원하리라 맹세하였다.”

『송설당집』 I, 170쪽.

13) 손앵화는 가사에 나타난 꽃이 단순히 외양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내면적 속성이 의미화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손앵화, 앞의 논문, 64쪽.

14) 백순철, 앞의 논문, 217쪽.

주야장시晝夜長時 황송惶悚터니 류슈流水 갖흔 저 광음光陰이
어언기간於焉之間 대기大基로세 천리지척千里咫尺 털로鐵路길노

.....

태산泰山갓치 놓흔 덕덕德澤 히슈海水갓치 김흔 은혜恩惠
츠세양보此世仰報 못 다하고 리싱來生으로 기약期約하야
가이업시 이통哀痛흐나 적막황원寂寞荒原뿐이로다

.....

우리 귀비貴妃 여턴은덕如天恩德 리싱양보來生仰報 밍세盟誓흐 일
존귀尊貴흐신 령탑하靈榻下에 츠세즈세仔細仔細 아뢰주렴

-〈감은感恩〉

송설당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일대 사건은 그녀가 '영친왕 보모'가 된 사실¹⁵⁾이었다. 이를 계기로 그녀는 결국 가문의 신원과 복권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이다. 송설당이 엄비와 고종의 신임을 두텁게 입었음을 알 수 있다. 그녀가 머물렀던 궁중생활 10여년은 대한제국기와 일치하는 격변의 시기였다. 이 시기에 엄비는 아관파천 이후 고종의 계비로서 실질적인 왕후 역할을 지속하였고, 궁인에서 귀인으로, 순빈으로, 순비로, 봉작되었고, 1903년 황귀비에 책봉되었다.¹⁶⁾ 송설당은 1897년 영친왕의 출생 이후 입궁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이후 1907년 영친왕이 불모로 일본에 가기까지 함께 생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조선왕조실록』 기사에 의하면 고종은 특별히 영친왕을 총애하여 영친왕이 천연두나 홍역에 걸리자 심히 염려하며 살폈고, 병이 낫자 사면을 베풀고 상을 내리는 동시에 잔치를 하였다.¹⁷⁾ 이러한 과정 속에

15) 김희곤, 앞의 논문, 12쪽.

16) 조선왕조실록 『고종실록』 기사 <http://sillok.history.go.kr>

1897. 10. 20. 궁인 엄씨가 해시에 아들을 낳음.

1897. 10. 22. 궁인 엄씨 귀인으로 봉작.

1900. 08. 03. 엄씨를 순빈으로 삼음.

1901. 10. 14. 엄씨를 순비로 책봉.

1903. 12. 25. 순비 엄씨 황귀비 책봉.

17) 『고종실록』 1903. 04. 24. 기사에 다음과 같은 고종의 말이 전한다.

“영친왕은 천성이 영특하고 온갖 풍모를 일찍이 갖추었다. 아침저녁으로 기쁜

서 송설당 역시 깊은 총애를 입었을 것임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송설당은 궁궐 생활에 대해서는 거의 말한 바가 없다. 궁궐에서 나온 1908년 이후에 무교동에 터를 잡고 ‘송설당’이라는 택호로 가문과 사회를 위한 삶을 살 뿐이었다. 다만 그녀가 소원을 이룬 데에는 임금의 은혜와 엄비의 신임이 바탕이 되었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는 시를 통해 보은의 맹세를 표출하고 있을 뿐이다. 왕실의 여러 사정을 익히 듣고 보았을 그녀이지만 격변기의 정치나 왕실에 대한 언급을 무척 조심하고 절제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¹⁸⁾ 가사에 나타난 내용은 엄비가 돌아가신 후 그녀를 추모하기 위해 영취원에 들르거나 옛 왕실을 회고하며 무상한 세월을 한탄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녀는 이러한 절제된 시어를 통해 대한제국의 황제와 황귀비에 대한 충성심을 완곡하게 표현하였던 것이다. <감은> 역시 이러한 작자의 정서가 대표적으로 드러나 있는 작품이며, 하늘같은 그 은혜를 내세에 보답하겠다고 맹세하는 작자의 충심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송설당은 1886년 그녀 나이 32세 때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 편모를 봉양하며 살았다. <약수동>은 그녀의 모친에 대한 효심을 드러낸 것이다.

약수동藥水洞에 령약수靈藥水가 연년익수延年益壽 허단 말을
 고로상전古老相傳 들었기로 구십모당九十母堂 시위侍衛하고
 약수동藥水洞을 향向히 가니 금릉즈고金陵自古 명승디名勝地라
 기암괴석奇岩怪石 업슬소냐 전일前日 보든 저 바위가

안색으로 문안드리니 효성과 우애가 진실로 두터웠다. 책과 붓을 가지고 놀면서 충명한 자질을 보였다. 술잔을 올려 예에 맞게 경하하고, 황태자를 따라서 끝없는 기쁨을 안겨 주었다. 스승을 번거롭게 하지 않고서도 근엄하고 단정하게 성장하였다. 짐이 사랑하는 마음이 간절하여 늘 애지중지하였는데 전번에 마침 몸의 조화가 어긋나서 바로 진후가 나타났다. 태의원에서는 짐이 과도하게 근심한다 해서 의관들을 거느리고 궐내에서 직속하면서 아침저녁으로 진맥하기를 청하였다.”

18) 그녀의 남다른 육영사업은 엄비의 영향인 것으로 파악된다.

김호일, 「최송설당의 교육이념과 교육활동」, 『국학연구』 11, 국학연구소, 2006, 225쪽.

약슈藥水를 등에 실고 나를 보고 반기는 듯
 사모紗帽 바위 할미 바위 망쥬석望柱石이 이 아닌가
 억만년億萬年 의구依舊하여 넷 기약期約을 일치말고
 장생약수長生藥水 인도引導하여 너와 합피 만만슈萬萬壽를
 우리 친당親堂 드러주소

-〈약수동(藥水洞)〉

김천의 명승지 약수동을 찾아가 구십 노모의 장수를 기원하고 있다. 가문의 맏딸로서 모친을 모시고 생각하는 효성스런 자세를 볼 수 있다.¹⁹⁾

또한 송설당은 농민들의 입장을 생각하는 작품도 남겼는데 〈희우(喜雨)〉나 〈농자대본(農者大本)〉이 그것이다.

신농씨神農氏의 널분 덕덕德澤 하늘 아래 웃씀일세
 보던지하普天之下 큰 근본根本이 만스중萬事中에 제일第一이라
 농스農事짓는 우리 동포同胞 신근로고辛勤勞苦 막심莫甚하네
 ……

그 중中에도 숨은 근심 모닐 적에 날 가물가
 모닐 뒤에 큰 비 올가 동풍東風 부러 싹 마를가
 이 근심과 저 괴롬을 어디다가 비유比喻하리
 그렁저렁 지니다가 룡월염턴六月炎天 당도當到하면
 땀이 흘너 목욕沐浴 되고 몸이 타서 흑빳이라
 이럼으로 말하기를 나락마다 신고辛苦로다

-〈농자대본(農者大本)〉

〈희우〉에서는 가뭄 끝에 내린 비를 기뻐하며 '격양가'를 부르리라고 했고 〈농자대본〉에서는 농민들의 근심과 노고를 헤아리며 '나락마다 신고'임을 노래했다. 백성들의 깊은 절고에 대해 비판적으로 노래하는 대신 다소 관념적

19) 지역과 가문에 갇혀 다소 추상적인 충효 의식을 노래했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되기도 하였다.

백순철, 「규방가사와 근대성의 문제」, 『한국고전연구』 9, 한국고전연구학회, 2003, 51쪽.

인 수준의 정서를 표현했지만, 이러한 태도는 역시 그녀가 애민 정신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공적 자아의 표출이라고 할 수 있다.

3. 내적 자아의 표출 - 고독과 욕망의 환유

송설당 가사는 공적 자아의 표출 양상이 많은 비증을 차지하고 있지만 그녀의 내면적 정서와 깊은 무의식을 드러내는 작품 역시 존재한다. 여기에는 인생을 돌아보거나 회한을 느끼는 정서도 있지만 그녀의 꿈과 욕망, 가정에 대한 소망을 환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작품들이 속한다. 이들은 그녀의 심층적 내면세계를 표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1) 인생의 성찰과 고독

밖으로 보이는 대장부의 기상과 ‘송설’의 이미지와 대조적으로 작가는 깊은 시름과 근심, 회한 등을 품기도 하였다. 여성 개인으로서 이룩하기에는 무겁고 힘든 일이 많았기 때문이다.

전전반측輾轉反側 잠 못 일워 지닌 일과 오는 일을
 두루두루 생각生覺다가 잠 혼숨을 못 일워라
 동방洞房에 우는 실솔蟋蟀 너는 무삼 혼恨이 깊혀
 긴긴 밤이 다 진盡토록 자른 소리 긴 소리로
 조조절절啾啾切切 석거 울고 저 중텨中天에 놓히 써서
 울고 가는 외기력이 너는 어이 나를 미워
 서리차고 깃흔 밤에 기록기록 부르지져
 간신간신艱辛艱辛 들야든 잠 영영永永 아조 업셔진다

-〈츄야감회秋夜感懷〉

〈츄야감회〉에서는 지난 일과 오는 일을 두루 생각하다가 잠 못 드는 작자의 고뇌가 그려지고 있다. 가을밤에 우는 귀뚜라미와 울고 가는 외기러기는 고독의 상징이다. 작자의 외로움과 쓸쓸함이 주된 정조로 표현되고 있다.

히당화海棠花야 히당화海棠花야 명사십리明沙十里 히당화海棠花야
 꽃 진다고 서러마라 명년삼월明年三月 도라오면
 너는 다시 피려니와 슬푸도다 우리 인싱人生
 왔다 한번 도라 가면 다시 오기 어려워라
 히당화海棠花야 히당화海棠花야 저 흰초萱草를 네 아느냐
 백발즈친白髮慈親 헌슈발원獻壽發願 북당춘우北堂春雨 심엇더니
 여름 업는 꽃 보시고 불초녀식不肖女息 싱각生覺흐스
 탄식嘆息하고 흐恨흐신들 쓸데업는 외론 신세
 스정私情업는 이 세월歲月이 서산락일西山落日 어이허리

-〈히당화(海棠花)〉

〈히당화〉는 어머니를 위해 심은 꽃인데, 어머니는 열매가 없는 이 꽃을 보시고 송설당의 외로운 인생을 생각하며 탄식한다고 했다. 그러나 송설당이 자답하기를 탄식하고 한하신들 쓸데없는 외로운 신세이며 가는 세월에 자신은 이미 서산낙일 같은 처지가 되었음을 고백한다. 그리고 가정을 이루지 못한 자신의 신세를 어이하겠느냐고 반문한다.

송설당은 여러 작품을 통해 자신의 외로운 처지를 드러내었다. 그러나 그 외로움은 처절하거나 서글픈 외로움이라기보다는 있는 상황을 긍정하고 극복해 나가는 외로움이며 고독이다.

2) 신선세계의 동경과 욕망

송설당의 무의식은 신선세계를 동경하고 찾아가기도 한다.

심슈중간深樹中間 천슈변淺樹邊에 헤헤잔운嘒嘒殘韻 우는 한선寒蟬
 네 소리 드러보면 미음每陰 이스즈二字스 분명分明하다
 미每양미每入스字 그늘음陰入스字 미음미음每陰每陰 우는구나
 네 뜻을 싱각生覺하면 디상선호地上仙號 앓가울가
 만산록슈萬山綠樹 미양每樣 잇서 스키번음四時繁陰 축원祝願이라
 네 축원祝願과 갖게 되면 너도 응당應當 죽지안코
 나도 응당應當 늑지안어 두리 모다 신선神仙일세

빅로청광 白露清光 흡기 吸氣 호고 서풍 西風이 석기 夕起할 제
 청량 淸涼한 성음 聲音으로 어지러이 우는구나
 신선 神仙에 장생술 長生術을 내가 먼저 알었는 듯
 우리도 일노 좇차 말근 기운 氣運 마시리라

-〈한선(寒蟬)〉

매미를 지상신선이라고 하면서 축원대로 된다면 함께 신선이 될 것이라고 한다. 매미의 청량한 성음은 신선의 장생술을 마셔 맑은 기운을 얻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자신도 그를 좇아 맑은 기운을 마시고 싶다는 바람을 비친다.

서북창문 西北窓門 열어 노코 인왕북악 仁旺北岳 바라보니
 중중층층 重重層層 저 석벽 石壁은 정신골격 精神骨格 쇠락 灑落하고
 울울청청 鬱鬱靑靑 저 초목은 관대의상 冠帶衣裳 방불 彷彿흐네
 담담 淡淡히 쓴 구름은 오는 손님 반기는 듯
 곤곤 滾滾히 흐르는 물 가는 손님 전별 錢別인 듯
 골격정신 骨格精神 관대의상 冠帶衣裳 석벽초목 石壁草木 부쳐두고
 오고 가는 빈객 賓客들은 한운류수 閒雲流水 맛터 있다
 구중춘식 九重春色 취선도 醉仙桃라 요지연 瑤池宴을 궤罷 後 후後에
 류선침상 遊仙枕上 꿈을 지니 소소슬슬 蕭蕭瑟瑟 저 추풍 秋風이
 만단슈회 萬端愁懷 이리킨다 저 풍경 風景 이 세월 歲月을
 그렇저렇 보니다가 적송선즈 赤松仙子 날 찾거든

-〈우음(偶吟)〉

인왕산과 북악산을 바라보며 쓴 〈우음〉은 몰락한 왕실을 연상하게 한다. 울울청청 서 있는 초목들은 관대의상을 한 대신들처럼 보이는데 그 앞의 구름과 물은 정처없이 흘러간다. 작자는 유선침을 베고 요지연에 가서 노는 꿈을 꾸다. 그곳에서 세월을 보내다가 적송자가 찾으려면 따라가서 놀고 싶다는 말끝을 흐렸다. 이러한 신선세계의 동경은 그녀의 무의식 속에 자리한 불안과 억눌린 심정을 풀어보고 싶은 욕구로 여겨진다. 그녀의 한시 속에 나타난 호소는 이러한 사정을 더욱 분명히 보여준다.

황제가 말씀하시길 너 송설아	皇曰爾松雪
속세 인연 아마도 끝난 것 같구나	塵劫尙已畢
먹은 마음 있거든 숨기지 말고 말하고	有懷言無隱
억울함 있거든 다 호소하거라 하셨네	有冤訴之悉
송설이 었디어 흐느끼며	松雪俯而泣
능히 입을 열지 못하니	不能開唇舌

.....

송설이 묵묵히 말을 못하고	松雪默無言
두 눈에 눈물이 그칠 줄 몰랐네	雙眼淚不絕
줄줄 흘리는 눈물 옷과 수건을 적시고	滂沱濕衣巾
소리내어 오열함도 깨닫지 못하였네	不覺聲嗚咽
황제가 말씀하시길, 네 실컷 울어라	皇曰爾之泣
내 너의 간곡한 정회 알겠도다	亦可究情曲
너의 회포 내 이미 헤아릴 수 있고	爾懷朕已度
너의 억울함 짐은 이미 밝게 아노라 하셨네	爾冤朕已燭

-〈기몽(記夢)〉

송설당의 내적 자아는 꿈 속에서 나비로 변해 옥황상제께 나아갔다. 황제는 송설당에게 억울함이 있으면 다 호소하라고 말해준다. 송설당은 었디어 흐느끼며 오열하고 만다. 황제는 실컷 울라고 다정히 말해주며 너의 억울함을 모두 헤아리고 있다고 말해준다. 다시 인간세계에 내려온 송설당에게 황제에게 받은 상자를 열어보니 학창의와 백우의가 있었다는 것이다. 신선세계 속에서 그녀는 치유받고 위로를 받고 있다. 현세에서는 이루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것들을 풀 수 있는 공간이며 상상인 것이다. 송설당은 이처럼 신선세계에 대한 상상을 통해 자신의 억눌린 심정을 다스리고 있었다고 보인다.

3) 이성지함의 환유적 표현

송설당은 가정을 이루지 못하고 홀로 생애를 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찍이 결혼한 남편과 사별했다고도 하고²⁰⁾ 상경 시에 이용교와 함께 부부였

으며 그를 군수나 감사 등으로 천거하고 이를 통해 부를 축적하였을 것²¹⁾이라는 추정도 있지만 사실 확인은 되지 않았다. 그러한 송설당에게 부부의 연이나 가정에 대한 소망이 있으리란 점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기암괴석(奇巖怪石) 쌍립(雙立)하니 그 형상(形象)이 이상(異常)하다
 상대(相對)하야 섰는 모양(模樣) 스람으로 이르며는
 신랑신부(新郎新婦) 마쥬 서서 초례(醮禮)하는 거동(舉動)갓치
 남동녀서(男東女西) 완연(宛然)하고 각색(各色)제구(諸具) 구비(俱備)하다
 룡두방축(龍頭防築) 동즈상(童子床)에 황산(黃山)이 기럭이오
 감천수(甘泉水) 주전(酒煎子)에 약수동(藥水洞) 술잔(盞)이라
 과하(過夏)주전(酒泉) 술을 부어 교비(交拜)하는 거동(舉動)이며
 하로로인(賀老老人) 상객(上客)으로 마좌산(馬佐山) 말을 모니
 시니(市內)거리 연석(宴席) 되여 리왕(來往)손님 모여든다
 미곡(米谷)에 싸인 백미(白米) 금곡(金谷)에 빛는 황금(黃金)
 봉황디상(鳳凰臺上) 봉황류(鳳凰遊)라 봉황(鳳凰) 갖흔 화락부부(和樂夫婦)

-〈금릉풍경(金陵風景)〉

송설당은 〈금릉풍경〉을 통해 기암괴석의 형상을 신랑 각시로 묘사하며 주변을 초례의 풍경으로 바라본다. 그녀는 봉황대 기암괴석과 계곡 등을 초례청에 각색 제구가 구비된 모습, 약수동의 술잔으로 교배하는 거동, 상객들이 몰려드는 모습으로 묘사하였다. 이성지합에 대한 욕망과 그에 대한 환유인 것이다. 이러한 사정은 〈기몽〉에서도 묘사된다.

사람마다 부부 있으나	人皆有夫婦
나 홀로 가정이 없네	我獨無家室
사람마다 자녀 있으나	人皆有子女

20) 조선일보 1930년 3월 5일자 기사(전 재산을 바쳐 학교를 세운 부인)에 의하면 “십륙세 때에 출가하였다가 바로 남편을 여이고 이래 본가에서 고독과 빈핍으로 더부러 싸호며 퍄퍄히 모흔 것이 오늘의 대금을 엇게 되었다 한다”고 쓰여 있다. 『송설당집』 II, 181쪽.

21) 김희곤, 앞의 논문, 16쪽 참조.

나는 단지 친정 조카뿐이네. 我則只親姪

-〈기몽(記夢)〉

송설당이 표출한 내적 자아의 모습에는 외로움과 고뇌 등이 토로되며 그녀가 억누르고 감당해야 했던 본성이 드러나고 있다. 과연 송설당은 씩씩한 여장부로서의 모습 안에서 일상적인 여성으로서의 행복은 돌아보지 말아야 했다. 그것은 ‘만가지 생각’이 되어 ‘잠조차 못이루게’ 했던 것이다.

4. 공적 자아와 내적 자아의 충돌과 지향

송설당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공적 자아였고, 가사의 대부분이 작자의 대 사회적 인 자의식을 드러내고 있었다. 화초를 통해서도 지조와 절개, 충의 등을 찾는 관념을 볼 수 있었고, 전 생애를 관통하여 가문의식을 일관되게 간직하고 드러내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송설당은 내면에서 번민하고 고뇌하는 본성과 욕망들을 표출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내적 자아의 표출을 통해 인간 송설당의 깊은 내면을 들여다 볼 수 있었다.

그런데 몇몇 작품에는 이러한 공적 자아와 내적 자아가 일관되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드러나 모순된 정서를 보이는 것이 있다. 앞에서는 깊은 번민과 외로움을 토로하다가도 마무리는 다시 공적 정서 내지 공적 자아로 돌아서는 것이다. 이러한 전환은 가사의 정서를 돌연함으로 끝맺게 하면서 정서의 일탈로 이어지는 효과를 갖는다. 즉 언제 울었냐는 듯이 눈물을 쓱 닦고 돌아서는 모습인 것이다.

나도 또한 늘근 회포(懷抱) 고인감탄(古人感歎) 업슬소나
 석양(夕陽) 등애 지고 슈장디(壽藏地)를 츠즈가니
 저문 것이 경공락조(景公落照) 솟는 것이 밍상(孟嘗) 눈물
 이 락조(落照) 이 눈물을 후천년(後千年)에 뉘가 다시
 비감(悲感)히도 쓸디업고 탄식(歎息)흔들 무엇(何)리
 고금스(古今事)가 일반(一般)이기 니 회포(懷抱)를 니가 위로(慰勞)

-〈송녕감회(松亭感懷)〉

〈송녕감회〉에서 작가는 인간사 지나온 세월의 무상함과 고금홍망을 노래한다. 죽어서 자신이 묻힐 수장지를 찾아가서 눈물을 흘리며 비감해 하는 것이다. 그런데 마지막 구에 이르면 탄식한들 무엇하겠느냐고 한다. 더욱이 이런 일은 고금사가 일반이라는 자기 위안에 이르더니 ‘내 회포를 내가 위로’ 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는 것이다. 정서의 돌연한 일탈이다. 이러한 형식은 다음 작품에서도 동일하다.

여름 업는 쫓 보시고 불초녀식不肖女息 싱각生覺호스
탄식嘆息호고 흥恨흥신들 쓸데업는 외론 신세
스정私情업는 이 세월歲月이 서산락일西山落日 어이호리
히당화海棠花야 히당화海棠花야 상테지화常棣之花 네 아느냐
화목和睦헐스 우리 형제兄弟 동기일신同氣一身 련連호 가지
부모父母 이슬 가치 바다 방비무성芳菲茂盛 일반一般이라
슈유須臾라도 잊지마려 세세장춘歲歲長春 되오리라

-〈히당화(海棠花)〉

〈히당화〉의 전반부는 인생의 무상함과 자신의 외로운 신세를 토로하고 있다. 그러나 결말부에 이르면 갑자기 형제의 화목과 부모의 은덕을 노래하며 오래도록 잊지 말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 또한 내적 자아의 표출이 공적 자아의 표출로 전환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동지야〉에서 보여주는 방식도 이와 비슷하다.

무정無情타 가는 세월歲月 뉘라셔 만집挽執호리
불청즈리不請自來 나는 백발白髮 어이 이리 빨니 상봉相逢
엄동설한嚴冬寒雪 길고 긴 밤 지는 회포 오는 근심
이리 궁궁 저리 반측反側 간신간신艱辛艱辛 들야든 잠
한턴寒天에 외기력이 기록기록 우는 소리
영영永永 아조 업서진다 몸을 일어 문門을 여니
중턴中天에 저 명월明月아 송설당松雪堂의 미진여호未盡餘恨

광치光彩를 잠시暫時 빌어 덩주선천定州宣川 쌀이 가서
 스티이상四代以上 팔디이하八代以下 각선묘各先墓를 봉심후奉審後에
 네 광치光彩를 환전還傳하리

-〈동지야(冬之夜)〉

송설당은 세월의 근심과 회포, 백발의 서러움, 잠이 오지 않는 밤 등을 노래하다가 결국은 선대조 묘의 봉심을 서두르는 가문의식으로 일탈한다. 달에게 광채를 빌어 정주와 선천을 빨리 가서 선대조의 묘를 봉심하고 싶은 포부를 노래하며 끝을 맺는 것이다.

이처럼 내적 자아의 슬프고 우울한 정서를 차단하고 공적인 자아로 결말을 맺음으로써 더 이상의 연민과 불안은 차단된다. 곧 개인 내면의 슬픔을 차단하고 공적인 자아로 회귀하는 것이다. 이것은 송설당 삶의 모습을 반영하는 것이며, 그가 인생을 이겨내 온 방법을 보여주고 있다. 자신의 연민에 빠지지 않고 책임과 소명을 다하는 공적 개인으로 돌아가 살았던 것이다.

5. 맺음말

송설당은 49편의 가사와 한시, 문을 통해 자신의 정서를 표출하였다. 본고는 송설당 문학의 의미를 드러내기 위해 그녀의 한글가사를 중심으로 자아표출 양상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자아표출은 공적 자아를 드러내는 것과 내적 자아를 드러내는 것으로 살펴보았는데, 내적 자아의식을 드러낸 작품이 14편 정도인데 비해 공적 자아의식을 드러낸 작품은 30편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것은 그녀 삶의 가치관이 공적 자아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다는 점을 말해주는 것이다. 공적 자아의 내용에는 자신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자호 '송설당'을 짓고 그에 따라 살고자 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작품에 드러나는 가문 복원의 의지와 성취 후의 자부심 또한 공적 자아의 모습으로 볼 수 있다. 그녀는 충, 효, 애민의 정서를 표출함으로써 유교적 관

념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반면 고독과 욕망을 대변하는 내적 자아의 표출 양상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녀의 작품은 인생의 성찰과 고독감으로 대표되는 것이 있는가 하면 신선세계의 동경과 욕망을 다룬 작품들도 있고 이성지함에 대한 환유적 표현을 나타낸 것들이 있다. 이들은 송설당 내면의 자아를 드러낸 것으로서 공적 자아와는 대별되는 인간 송설당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특히 공적 자아와 내적 자아가 함께 드러나는 작품이 주목되었는데 그녀는 자신의 내적 자아를 공적 자아로 전환시키려는 노력을 통해 슬픔을 차단하고 자신에 대한 깊은 연민에 빠지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송설당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개화기, 근대의 도전적인 여성 형상을 보여주었다. 그녀는 주체적인 삶의 모습을 보여주었고, 사회활동에 있어서는 존경할 만한 재산가의 모범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그녀의 일생 중에 가장 큰 소망이었던 가문의 복원과 번성 역시 성취하였다. 이러한 삶의 여정을 문학적으로 승화하고 표현한 것이 『송설당집』이라 할 수 있다. 송설당의 문학 역시 그녀의 삶과 마찬가지로 절제와 온건, 책임의식에 사로잡힌 공적 자아의 표상이 두드러지지만, 때로는 걱정적으로 내면을 토로하는 내적 자아의 표출도 숨기지 않았다. 전통과 근대 사이에서 전환기적 모습을 보이는 다채로운 그녀의 문학적 성취에 대해 지속적으로 연구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다.

▮주제어 : 송설당, 가사, 자아, 가문, 여성, 개화기, 근대

<참고문헌>

- 김종순, 『최송설당 문학 연구』, 경인문화사, 2008.
- 김창겸 편, 『최송설당』, 경인문화사, 2008.
- 김호일, 「최송설당의 교육이념과 교육활동」, 『국학연구』 11, 국학연구소, 2006, 197-236쪽.
- 김희근, 「최송설당 연구」, 『한국근대사연구』 32, 한국근현대사학회, 2005, 7-39쪽.
- 백순철, 「규방가사와 근대성의 문제」, 『한국고전연구』 9, 한국고전연구학회, 2003, 39-68쪽.
- 백순철, 「최송설당 가사의 문체와 현실 인식」, 『고시가연구』 15, 한국고시가문학회, 2005, 195-226쪽.
- 손영화, 「최송설당 가사에 나타난 꽃의 의미화 방식」, 『고전과해석』 8, 고전문학한문학회, 2010, 39-69쪽.
- 신지연·최혜진·강연임, 『개화기 가사 자료집』 4, 6, 보고서, 2011.
- 윤덕진, 「애국계몽기 가사의 전통양식 계승과 개선」, 『열상고전연구』 36, 열상고전연구회, 2012, 313-338쪽.
- 조선왕조실록 『고종실록』 기사 <http://sillok.history.go.kr>
- 최송설당기념사업회, 『송설당집』 I, II, 명상출판사, 2005.
- 최혜진, 「개화기 가사에 나타난 여성의 몸 담론」, 『어문연구』 68, 어문연구학회, 2011, 365-400쪽.
- _____, 「애국계몽기 가사에 나타난 교육의 문제」, 『한국학연구』 44, 고려대 한국학연구소, 2013, 325-346쪽.
- 한석수, 「최송설당의 문학세계와 현실 인식 - 언문사조를 중심으로」, 『한중인문학연구』 13, 한중인문학회, 2004, 283-314쪽.
- 허철희, 「최송설당 시가 연구」, 『한국한문학연구』 15, 동국대한국문학연구소, 1992, 309-333쪽.

[Abstract]

Aspects and Meanings of Self Expression Shown in the Lyrics of Choi Songseoldang

Choi, Hye-jin

Choi Songseoldang (崔松雪堂, 1855-1939) is a woman who lived an very special life in the time of enlightenment. This study examined aspects of self expression in the lyrics of her works to show her literary achievement and the meanings. Songseoldang expressed her emotion in Korean through the lyrics of 49 works. Self expression was examined by showing public self and inner self. The works which showed inner self are about 14, while the ones which do public self-consciousness are forming an ever-greater part of her ones as about 30. This implies that her life's values consider public self as important. The contents of public self could be found that she named 'Songseoldang' to establish her identity and tried to live accordingly. Her will to restore her family and her pride after achievement shown in her works can be public self. She also showed her confucian concept by expressing emotion of loyalty, filial duty, and love of the people. On the other hand, the aspect to express inner self which represents loneliness and desire could be found in her works. Some of her works is represented by introspection of her life and loneliness. And there are the works which treated longing and desires for Taoist hermits' world and some showed metonymic expression about marriage. They showed Songseoldang's inner self and human Songseoldang who are different from public self.

Especially, the work which public and inner self is shown together attracts attention. It could found that she blocked sorrow through the efforts to try to

change inner self to public self and did not indulge in self-pity very much.

【Key words】 : Choi Songseoldang, lyrics, self, family, women, the time of enlightenment, modern times

최혜진

목원대학교 교양교육원 조교수

(302-729) 대전시 서구 도안북로 88 목원대학교 교양교육원

전자우편 : sori0609@mokwon.ac.kr

이 논문은 2013년 7월 25일에 투고되었으며, 2013년 8월 20일에 심사 완료되어 8월 30일에 게재 확정되었음.